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 금주에는 “할 때 같이 하라. 할 때 같이 못 하면 못 한다.  
그리고 사탄들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사탄의 침범도 받고,  
할 일도 못 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제 오늘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1.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살게 된다. 그가 <사람>이면 ‘사람’ 과 같이 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과 같이 살고, <성령님>이면 ‘성령님’ 과 같이 살고, <주>라면 ‘주’ 와 같이 살게 된다.
2.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과 같이 살게 된다. 왜? 사랑하면 결국 자기 몸도, 마음도, 생각도 기울어지기 때문이다. 고로 그 주관권에서 같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사랑함으로 같이 ‘한 주관권’ 에서 살게 됐다.
3. <음식>은 변질되면 썩듯이, <신앙>도 변질되면 썩는 신앙이 된다. 고로 <자연 계시>도 보면, ‘신앙이 썩을 때’ 에는 ‘썩은 것’ 을 보여 주신다. 그리고 ‘신앙이 죽었을 때’ 는 ‘죽은 것’ 을 보여 주면서 “저와 같이 죽었다. 죽게 된다.” 하며 자연으로 계시해 주신다.

4.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고 반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거스르고 막고 꺾고 튼다. - 이것이 ‘사탄,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5. <사탄, 마귀, 귀신들>은 자기가 멸망받을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악을 행한다.
6.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나니, 이를 알고 속히 회개할지니라.
7. <사탄>은 각종 해를 준다. 고로 너희는 항상 악과 싸워서 이겨라.
8. <사탄, 마귀, 악령들과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도우시며 같이 싸워 주신다.
9. 마귀 중에는 자기가 지면 그냥 돌아가는 마귀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마귀들’을 데리고 와서 싸운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를 믿고, <주>와 일체 돼서 행하여라. <주>는 ‘만왕의 왕’이요, ‘마귀를 이긴 만주의 주’니라. 고로 이긴다.
10. <믿음>과 <사랑>을 벗어나면,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사탄과 맞서며 늘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1. <사탄>이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하게 되나니, 이를 깨닫고 분별하고 판단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 대로 하고 ‘주의 뜻’ 대로 하여라.
12. <주의 생각>대로 해야 사탄이 다스리지 못하고, 꼬이지도 못하고, 거짓 행위를 해도 곧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주의 생각>으로 일체 되어 행하여라.
13. <사탄>은 ‘영체’ 만 있다. 그러나 <사람>은 ‘영체’도 있고 ‘육체’도 있으니, 사탄과 싸울 때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하나님>은 ‘사탄’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시니, 그리하는 자는 사탄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
14.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다. 고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것’을 못 하게 막고, 꾀고, 각종으로 유혹하고, 괴로움을 준다. 이러한 <원수, 사탄들>을 날마다 기도하여 멸하여라. 그냥 두면, <사탄>이 그냥 있지를 않는다. 아예 없애 버려야 된다.
15.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반대하고, ‘하나님의 근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말씀대로 실천을 할 수 없으니 결국 신앙이 병들게 되고 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멸하는 무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신’ 이 되어 사탄들을 멸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을 이루니, <사탄들>은 말씀을 못 받게 하고 못 깨닫게 한다. 말씀의 인봉을 떼는 데에 사탄들이 각종 죽음을 내걸고 막는다. 그러나 <주>는 그 모든 말씀의 인봉을 떼고 와서 <말씀>을 ‘무기’ 로 삼고 사탄들을 멸한다.
17. <악과 불의>를 멸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은 못 들어온다.
18.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면,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다.
19. 매일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해라.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사탄’ 을 생각하고, 다스리고, 기도하여라.
20.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최고 하나님의 목적’ 을 이루려고 하니, <사탄>은 최고로 발악하며 골이 터지도록 몰두하여 유혹하고, 꼬이고, 행한다. 그러나 결국 <메시아>로 인해 패하여 그 머리가 쪼개지고 터져서 뿔이 나온 채 지옥으로 간다.
21. <메시아>는 ‘사탄’ 을 원수시한다. <사탄의 가장 악랄한 행위>를 알기 때문이다.

22.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완전히 행하여라.

23. <주>를 모시고 섬기며 흠 없이 예비하고 행하여라. 그래야 <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 지금까지 잠언을 먼저 전해 왔습니다.

나머지 말씀을 몇 가지 해 주고, 금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 <하나님의 뜻을 최종으로 실천하는 자>가 ‘마지막 메시아’다. 고로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요, ‘사탄에 속한 자’다. 믿어도 <모르고 믿는 자>는 역시 사탄들이 그를 무기로 사용한다.

25. <사탄>은 아주 큰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위력과 권세는 메시아 앞에 ‘작은 소총’과 같다.

26. <하나님이 보낸 자>는 ‘말씀의 인봉’을 떼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오는데, 그 무기는 ‘사탄들의 작은 총’ 앞에 ‘원자폭탄’과 같다. 고로 선생이 옛날에 산에서 기도할 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사탄을 멸하고 악을 멸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 그 말씀을 조립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 했다. 이같이 신약 때 ‘예수님’도 그러했다. <사탄>은 엄청난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며 막았다. 아무도 없이 혼자 사탄과 싸우면서 말씀을 받았다.

27. 어느 때는 말씀을 깨닫고서 ‘지금까지 모든 개신기독교, 천주교, 유대 종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왔는데,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할까? 구약,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폈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전한 말씀>이 아닌 상태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고로 구원을 제대로 못 받는데...’ 하며 이것을 두고 오랫동안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다. 이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다. 가령 <어린아이가 클 때>는 제대로 모른다. 그러나 <근본>은 제대로 몰라도, <부모>가 보호해 주고 함께 해 주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그 나름대로 ‘그 나이에 해당되는 뜻’을 편다. 이와 같이 <종교>도 ‘근본’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뜻을 펴 온 것이다. <성장한 자>는 더 많이 깨닫고 아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성장한 자’를 통해서 결국 그 뜻을 펴신다.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워야 된다. 안 배우고서는 ‘뜻’을 펼 수가 없다. 배워야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편다. 이를 깨닫고 ‘그렇구나. 그러면 <성장한 자, 아는 자>가 이 모든 하나님의 근본 뜻을 두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성장시킨 터전 위에 ‘마지막 시대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28. 하나님은 내게 여러 가지를 보여 주셨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면,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못 했던 일인데, 내가 가면서 그 일을 해 버렸다.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다. <못 한 시대>는 못 하고, <하는 시대>는 ‘하는 사람’이 하는 대로 역사를 펴 나간다.

29.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루마리 안팎에 쓴 글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두루마리 안팎에 쓴 글을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했다. <밖의 글>은 ‘육에 속한 말씀’이요, <속의 글>은 ‘영적 세계에 해당되는 근본의 말씀’이다.

30. <육에 해당되는 말씀>과 <영에 해당되는 말씀, 근본의 하나님의 말씀>의 인봉을 떼는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한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사랑에 대한 인봉’을 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봉>을 떼야 된다. 그 사랑의 인봉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일단 ‘목적한 것’을 이룬 것이 된다. 목적을 이룬 다음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다스리고 사는 세계’다. 이것을 뺏기지 않고 잘 보관하며 다스리는 역사의 세계다. <이 시대>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 <메시아> 하나로 인해서 이룬 것이다. 그가 아니라면, 천 년이 가도 못 하고, 만 년이 가도 못 한다. 왜? 무엇이든지 사람이 모르면 못 하기 때문이다.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른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알아야 될 것’이 참으로 많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정말 열심히 해야 그것

이 이루어진다.

31. <사탄>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다 쓴다. 왜? 사람들이 몰라서다. <사탄>은 ‘모르는 사람’을 쓰고 행한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근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펴고 있어도 반대하고 싫어한다. <사탄이 쓰기 좋았던 자들>이 ‘기성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인들, 그리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게 반대한 일이 없었다. 가장 반대한 자들이 ‘기성 기독교인들’이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은 <기독교에 해당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가령 <가정에 해당되는 일>이 있으면, 그 식구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그 식구들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와 같이 <메시아에 해당되는 일>은 ‘기독교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기성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제대로 모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사탄’이 쓰기 좋았던 것이다. 지금은 이미 그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세상에서도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도 나이를 먹고, 때가 가서 덜하다. <시대>가 바뀌어 버렸다. 아무리 뽀박하고 반대했어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뽀박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연애를 안 하겠느냐? 이와 같이 아무리 기성에서 막고, 반대하고, 뽀박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뤘다.

32.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혼자’ 싸운다. 그래서 산에 있을

때 21년 동안 비바람 맞으면서, 눈보라 맞으면서 혼자 싸웠다. 형제도, 부모도 없었다. 혼자일 때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셨다. 결국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하게 됐다.

33. 전적으로 그 일에 빠져서 행하면, <사탄>도 그 일에 대해 역사를 못 한다. 마치 비닐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비가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같다. 완전하게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비바람이 쳐도 비 한 방울 안 들어온다. 이와 같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깨닫고, 터득할 때는 ‘사탄’이 개입하지 못한다. 고로 꿈에 보면, 늘 사탄들이 선생에게 당해서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 된다.

34.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환상이 보이기를, 물이 철렁철렁하는 곳에서 수영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걸리니 수영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나오니, 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빠져서 맨바닥이 되어 버렸다. 이는 ‘<주>는 은혜의 물이다. <주>가 은혜의 물을 가지고 다닌다. 고로 <주>가 떠나면, 은혜의 물이 없어진다.’ 함이었다.

35. <주>가 가면 ‘하나님’이 가고, ‘성령님’이 가서 그 옆에 계신다. <메시아>는 혼자 두면 안 되기 때문이다.

◎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